■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07-135.
http://doi.org/10.17948/kcs.2020..89.107

【특집: 동아시아 문헌 속 개인과 개인주의】

『荷齋日記』를 통해 본 근대전환기 개인의 일상과 사랑* **

정우봉(鄭雨峰)***

목 차

1. 문제 제기
2. 春軒과 雲樓, 두 여성과의 사랑과 갈등
3. 『하재일기』에 나타난 기록 의식의 일면
4. 마무리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근대 전환기를 살아갔던 荷齋 池圭植(1851-?)이 남긴 『荷齋日記』를 중심으로 그의 사생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공적인 업무 활동 이외에 개인의 자잘한 삶을 풍부하게 서술한 『하재일기』 중에서 春軒, 雲樓라는 두 여성과의 만남과 사랑에 나타난 내밀한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하재일기』는 20년 동안 지규식이 매우 성실하게 기록해 나간 일기이다. 貢人으로서의 공적인 활동, 당대 사회 현실의 변화와 추이 등도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일상 및 사랑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 이 논문은 2020년 근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기획주제 : 동아시아 문헌 속 개인과 개인주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동안 『하재일기』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규식의 가족사, 인간 관계 등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지규식과 연인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했던 춘헌과 운루라는 두 여성과의 만남과 사랑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지규식이 『하재일기』에서 상세하게 기록한 연인과의 교제는 가장 사적이며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에서 가장 은밀한 영역이다. 인간의 내밀한 욕망, 사랑과 성에 관련된 이들 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규식의 기록 의식을 구명함으로써 근대전환기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진전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하재일기, 지규식, 사생활, 개인, 사랑, 일상, 근대전환기.

1. 문제 제기

이 논문은 근대 전환기를 살아갔던 荷齋 池圭植(1851-?)이 남긴 『荷齋日記』를 중심으로 그의 私生活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하재일기』는 양반이 아닌 계층이 작성한 일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일기는 양반층이 작성한 것인데 반하여, 『하재일기』의 작자 지규식은 그 신분이 평민이거나 혹은 중인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 『하재일기』에서 주목할 점은 개인의 일상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다. 자기 주변 및 생활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특히 두 여성과 연인 관계를 지속해 갔던 과정을 상세하게 일기 속에 담아내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해보고자 한다.

池圭植은 1891년 1월 1일부터 1911년 윤6월 29일까지 20년 7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일기를 작성하였다. 41세부터 기록을 시작하여 환갑이 되는 해에 멈추었다. 池圭植은 宮中에 그릇을 조달하는 貢人이었다. 신분은 평민 혹은 중인 출신으로 추정된다. 『하재일기』는 물건을 납품하거나 매매하는 일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는 貢房의 下掌 직임을 담당하여 공식적 업무를 기록하는 『下掌日記』를 작성하였는데, 『하재일기』에도 그의 직무와 관련된 그릇의 납품, 판매, 자금 거래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荷齋日記』는 공적 업무 일기인 『下掌日記』의 보

조적 성격도 띠고 있다. 하지만 『하재일기』에는 개인의 일상, 여가 생활, 여성과의 교제, 가족사 등도 매우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이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토크빌은 일찍이 개인주의의 주된 특징을 내향적인 사생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 시민으로 하여금 집단에서 분리되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따로 떨어져 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평온하고 사려 깊은 감정, 개인주의란 바로 그러한 감정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만의 작은 사회를 만든 뒤 큰 사회는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다."[1] 지규식의 경우 『하재일기』에서 춘헌과 운루라는 두 여성과 오랜 기간 교제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던 바, '자기만의 작은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2]

우리는 공적인 업무 활동 이외에 개인의 자잘한 삶을 빠짐없이 서술한 『하재일기』를 통해 그의 사생활의 내밀한 모습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하재일기』는 20년 동안 지규식이 매우 성실하게 기록해 나간 일기이다. 貢人으로서의 공적인 활동, 당대 사회 현실의 변화와 추이 등도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일상 및 사랑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

그동안 『하재일기』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연구 성과가 제출된 바 있다.[3] 하지만 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규식의 가족사, 인간 관계 등에 대한 분석이 제출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지규식과 연인 사이를 오랜 기간 유지했던 春軒과 雲樓라는 두 여성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하재일기』에 나타난 사생활의 주된 영역을 연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규식이 『하재일기』에서 상세하게 기록한 연인과의 교제는 가장 사적이며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에서 가장 은밀한 영역이다. 인간의 내밀한 욕망, 사랑과 성에 관련된 이들 자료에 나타나 있

1) 알랭 로랑, 『개인주의의 역사』, 김용민 역, 한길사, 2001, 64면.
2) 개인 사적 생활 영역은 이상적인 상태에서 대중의 감시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권리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의 개인 생활을 말한다.
3) 그동안의 연구성과는 참고문헌으로 대신함.

는 지규식의 기록 의식을 구명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전환기 개인의 발견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春軒과 雲樓, 두 여성과의 사랑과 갈등

『사생활의 역사』(3)는 로마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사생활이라는 내밀한 주제를 통사적으로 고찰한 역작이다. 이 책에서 사생활의 내밀성에 대한 연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에 적합한 장소, 둘째 사랑과 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건, 셋째 인간의 내면적 존재가 보존된 흔적으로서 그림이나 글씨에 의한 묘사 등이다.[4]

『하재일기』는 근대전환기에 산출된 수많은 일기들 가운데 개인의 사생활 및 내면이 풍부하게 기록된 작품이다. 지규식과 두 여성, 春軒과 雲樓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해 나갔던 장소인 '長春軒'과 '碧雲樓'라는 공간, 그리고 지규식이 두 여성에게 사랑의 징표로 주었던 '선물'에 주목하고자 한다.

春軒은 경기도 楊根 分院 마을에서 長春軒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이었다. 양근 분원은 司饔院의 광주 분원으로, 현재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속해 있다.[5] 한강으로 합류하는 牛川(지금의 慶安川) 하류에 위치한 양근 분원은 배를 이용하여 서울까지 이동이 용이하였다. 사옹원 분원은 세조 연간부터 관영 수공업체제로 운영되다가, 1884년 고종 21 商人物主를 포함한 민간에 이양된다. 주요 도자 연구자들은 분원의 民營化를 근대 도자의 기점으로 설정하는데, 이때 분원백자의 수요층이 왕실에서 서민으로까지 대중화되면서 '대량 생산'이라는 제작 방법과 양식의 변화, 즉 도자 환경의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6]

분원의 민영화를 통해 궁궐이나 관청에 진상되고 남은 자기는 민간에 유통되었다. 시장 판매, 행상, 주문 제작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분원 자기를 구

4)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책임 편집, 『사생활의 역사』(3), 새물결, 2002, 278면.
5) 당시 행정구역상 양근에 속하며, 현재의 경안천 하류에 위치한다.
6) 방병선, 「하재일기를 통해 본 조선말기 분원」, 『강좌미술사』 제34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입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를 구입하기 위해 분원 마을로 많은 행상들이 모여들었다. 1759년 기묘년 호적을 기준으로 볼 때, 분원리 인구는 民戶 181호에 남자 285명, 여자 379명이었다. 이러한 숫자는 남종면 내의 다른 마을과 비교할 때 많게는 10배가량 된다. 그리고 남종면뿐 아니라 양근군에 속해있는 나머지 9개면 가운데서도 가장 많아 많은 家戶의 이동으로 인한 인구집중 현상을 볼 수 있다.[7] 지규식이 활동했던 19세기말 分院은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행상과 재화가 모여들어 상업 중심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에 따라 長春軒과 같은 술집들도 여럿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재일기』에는 長春軒, 碧雲樓 이외에 臨江屋 등의 술집, 그리고 그 술집에 일하는 여러 여성들이 등장한다.

1) 春軒과의 사랑과 갈등

지규식은 『하재일기』에서 두 여성과의 교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春軒이라는 여성과의 만남은 1880년 무렵부터 1898년까지 이어졌으며, 春軒이 죽은 이후 雲樓라는 여성과 1899년부터 1908년까지 교제를 이어갔다. 두 여성은 모두 長春軒과 碧雲樓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이었다. 지규식은 장춘헌과 벽운루, 두 공간을 중심으로 두 여성이 죽을 때까지 만남을 지속해 갔다.

지규식은 春軒과 1880년 무렵부터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사람 사이의 교제는 그녀가 1898년 세상을 뜨기까지 약 20여 년동안 지속되었다. 현재 전하는 『하재일기』는 189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녀는 1월 2일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여 1898년까지 『하재일기』에 줄곧 등장한다. 『하재일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

지규식은 서울 등으로 출타한 것을 제외하고 분원 마을에 있을 때에는 거의 매일처럼 '長春軒'이라는 술집에서 그녀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녀와 만난 날이면 한번도 빠지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 이처럼 연인관계로 있던 인물과의 사생활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록으로 남겨 놓

7) 최경화, 「조선후기 분원리 시기 관요백자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4.

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춘헌에 대해 기록한 것만을 떼어놓고 그것들을 연결시켜 읽어보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롭게 다가온다.

池圭植은 동갑인 韓氏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여 슬하에 6남 1녀를 두었다. 자식들 가운데 5명이 요절하였으며, 1905년 이후에는 첫째와 둘째 아들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집은 牛川의 分院 근방에 있었으며, 長春軒은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춘헌과 운루, 두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지규식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였지만, 동갑내기 아내인 韓氏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다. 아내는 자주 등장하지 않고 자세하지도 않다. 1897년 이후에는 아내에 대한 기록이 종종 보인다. 아내의 병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예컨대 "아내가 설사 때문에 몸져누웠으니 매우 안타까웠다."[8]라거나 "집사람도 기침에다 온 뼈까지 모두 아파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매우 안타까웠다."[9] 등의 언급이 그 예이다. 다음 일기는 아내의 우울병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 집사람이 不和로 우울병이 있었는데, 삼경이 되자 갑자기 關隔하여 위급한 지경에 처하였다. 급히 약을 먹고 밤이 깊어진 뒤에야 조금 회복되었다.[10]

여기서 '不和'가 작자와의 不和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이 무렵 교제를 하고 있던 운루라는 여성과의 관계 때문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아내가 우울병에 걸렸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작자와의 관계가 불편하였을 때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작자는 長春軒의 주인이었던 春軒을 여러 이름으로 호명하였다. 春軒 이외에 蘭卿, 蘭人, 蘭香, 伊人, 香君 등의 이름이 『하재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春軒이며, 그 외의 명칭은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되었

8) 池圭植, 『荷齋日記』 1898년 9월 23일. 번역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한 『國譯 荷齋日記』를 참고하였음.
9) 池圭植, 『荷齋日記』 1900년 1월 4일.
10)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9월 29일.

다. 『하재일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提川室 등과 같이 출신 지역으로 불리거나 하나의 이름만으로 불리는 것에 비해, 춘헌의 경우에는 이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 伊人이라는 용어는 총 56회 등장하며, 대부분 1891년에 사용되었다. 『詩經』에 연원을 둔 이 용어는 한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남녀간의 연인 관계에서 사용된 용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한 여성에게 여러 명칭을 붙여 호명한 것은 춘헌이라는 사랑했던 여성의 존재감을 상황에 따라 새롭게 발견하고 그때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지규식의 춘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반영해준다고 하겠다.

- 저녁을 먹고 春軒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11]
- 저녁을 먹고 家隷를 데리고 우천에 나가서 세전 340냥을 지고 들어왔다. 춘헌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12]
- 연식을 남한산성으로 보냈는데, 동남문 밖 先墓에 성묘하고 저물어서 돌아왔다. 밤에 춘헌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 담뱃값이 2전이다.[13]
- 나는 바쁘다고 작별하고 곧바로 동문으로 나가 걸어서 해질 무렵에 경호를 건넜다. 지나는 길에 춘헌을 방문하여 다리를 쉬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初更이 지나서 비로소 이르렀다.[14]
- 밤에 춘헌에 이르러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15]
- 춘헌에게 20냥을 주고, 밤이 깊도록 달구경을 하고 돌아왔다.[16]
- 밤에 춘헌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17]
- 5냥은 춘헌 땔나무 값이요, 2냥 6전은 담뱃값이다.[18]
- 춘헌에 가서 종일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다.[19]

1891년 8월의 일기 중에서 춘헌과 관련된 기록만을 선별한 것이다. 위의

11)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8월 11일.
12)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8월 12일.
13)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8월 13일.
14)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8월 15일.
15)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8월 16일.
16)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8월 17일.
17)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8월 18일.
18)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8월 19일.
19)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8월 22일.

인용문에서 보듯이, 지규식은 거의 매일 長春軒에 들러 만남을 지속하였다. 춘헌과 만났던 일에 대해서는 일기에서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공방에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저녁을 먹고 나서 늦은 밤시간에 장춘헌을 방문하였다. 8월 14일에는 외부에 출타를 하였다가 이튿날 귀가를 했는데,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장춘헌에 먼저 들르기도 하였다.

- 밤에 春軒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20]
- 춘헌에 가서 만두를 먹고 돌아왔다.[21]
- 춘헌에 갔다가 화나는 일이 있어서 바로 돌아왔다.[22]
- 밤에 춘헌에 가서 조금 있다가 바로 돌아왔다.[23]
- 밤에 춘헌에 가서 밤 1냥 어치를 사서 나누어 먹고 돌아왔다.[24]

춘헌과 있었던 소소한 일상, 장춘헌에서 춘헌과 함께 했던 일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그 일은 음식을 함께 먹고 잠깐 얼굴을 보고 정담을 나눈 것이었다. 만두를 먹고 돌아오기도 하고, 밤을 사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머물다가 금방 돌아오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 때문에 바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날그날 춘헌과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가감없이 기록하였다. 지규식에게 있어 그같은 사소한 일상은 특별하고 소중한 일이었다. 지극히 사적인 일을 특별한 일처럼 인식하고 기록하는 태도에 우리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춘헌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났던 사적이며 개인적인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개인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진전과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長春軒이라는 공간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의 사교와 유흥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규식에게 있어서는 춘헌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적이며 내밀한 공간이었다. 술집은 일종의 사교의 공간이다. 집단적이며 공동체적인 사회성의 형태로 존재해 왔다. 그런데 『하재일기』에서 '장춘헌'이

20)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1월 3일.
21)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1월 9일.
22)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1월 10일.
23)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1월 12일.
24)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1월 14일.

라는 공간은 춘헌과의 사사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점에서 공적 공간 안에 둘만의 시간이 흐르는 사적인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라는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규식은 춘헌과의 사적인 만남을 기록하였다. 장춘헌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술집이었고, 공방 근처에 있어서 지규식과 잘 아는 공방 동료 및 관련 사람들도 많이 출입하였다. 장춘헌 술집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술도 하지 않고 춘헌과 보냈던 시간만을 부각시켜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달리 말해 지규식은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라는 간명한 표현 속에는 두 사람만의 시간만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장춘헌'이라는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의 공간 속에서 춘헌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어갔던 둘 사이의 사적인 공간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특히 장춘헌은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 밤에 이인네 집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닭이 운 뒤에 돌아왔다.[25]
- 밤에 춘헌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닭이 운 뒤에 돌아왔다.[26]
- 춘헌에 이르러 정담을 나누고 닭이 운 뒤에 돌아왔다.[27]
- 밤에 춘헌에 가니 鐵絃琴이 있었는데 새 곡을 연주했다. 정담을 나누고 닭이 운 뒤에 돌아왔다.[28]
- 춘헌네 건넛방을 도배, 장판하였다. 밤이 깊도록 정담을 나누고 닭이 운 뒤에 돌아왔다.[29]
- 밤에 춘헌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닭이 운 뒤에 돌아왔다.[30]

작자의 경우 장춘헌에 가서 춘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위의 인용문들은 공통적으로 장춘헌에서 새벽녘까지 머물다가 돌아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

25) 池圭植, 『荷齋日記』 1891년 4월 4일.
26)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4월 11일.
27) 池圭植, 『荷齋日記』 1893년 3월 13일.
28) 池圭植, 『荷齋日記』 1894년 1월 19일.
29) 池圭植, 『荷齋日記』 1894년 2월 29일.
30) 池圭植, 『荷齋日記』 1894년 11월 16일.

졌는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밤을 지새운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작자와 춘헌의 관계가 단순히 성적인 관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 위의 인용문 등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만남과 육체적 욕망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춘헌은 지규식과 춘헌 두 남녀가 사사로운 만남과 욕망을 드러내는 공간이었다.[31] 그곳은 애정의 장소이며, 은밀한 사적 공간이며, 내밀성의 은신처였다.

1898년 춘헌이 병을 앓다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두 사람의 만남은 끝이 난다. 춘헌이 죽은 후 장춘헌을 떠올리면서 지은 다음 시를 통해 작자가 장춘헌 공간에 대해 지니는 감정을 엿볼 수 있다.

> 春軒이 예전 살던 곳을 지나는데, 살구꽃과 푸른 술집 깃발은 마침내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으니 탄식을 견딜 수가 없었다.
>
> 향산이 柳枝를 놓아 주고서
> 정을 잊지 못하여 다시 시를 지었다고 들었네
> 우리 약한 마음은 쇠나 돌이 아니어서
> 슬픔과 기쁨에 어느 곳인들 생각하지 않으리
>
> 聞道香山放柳枝, 情猶未忘更賦詩.
> 況我弱腸非鐵石, 悲歡何處不相思.[32]

춘헌이 죽고 난 후 장춘헌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서 지은 시이다. 1, 2구는 白居易가 지은 연작시 「病中十五首」 중에서 「別柳枝」를 가리킨다. 柳枝는 白居易가 가까이 했던 기생이다. 그녀와 헤어지면서 쓴 작품이 「別柳枝」이다. 지규식은 백거이의 이 작품을 원용하여 춘헌을 떠나보낸 것을 떠올렸다. 이어지는 3, 4구에서는 춘헌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곳에서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하여 그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토로하였다.

물론 두 사람의 만남은 장춘헌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

---

31) 『사생활의 역사』(3)에서 내밀성의 공간으로 언급된 것은 밀폐된 정원, 침실, 침대 옆 실터와 침대간, 서재, 곁방 등이다.

32) 池圭植, 『荷齋日記』 1898년 윤3월 1일.

伊人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厥母山에 이르러 오랫동안 앉아서 정담을 나누고, 석양이 되어 돌아오다.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캐어 가지고 와서 조그만 화분에 다 심었다.33)

춘헌과 수종사의 약속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배에 술과 과일을 싣고서 물결이 넘실거리는 상류에서 취기를 이용하여 정담을 나누었다.34)

胡洞 伊人에게 편지를 부쳤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가마를 타고 왔다. 함께 泥峴에 가서 시장의 물건들을 두루 구경하고 남산에 올라가 장안을 굽어본 뒤에 남관왕묘에 가서 關聖帝君을 배알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6전을 주고 술을 사서 마시고 길을 따라 구경하면서 인사동 여관으로 돌아왔다. (…) 이인과 밤에 정담을 나누었다. 담뱃값이 2전 5푼이다.35)

춘헌과의 데이트를 다루었다. 분원 마을 뒷산에 올라 정담을 나누거나, 수종사에서의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여 대신 한강에 배를 띄우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세 번째 인용문은 서울 출타하는 길에 춘헌도 함께 동행하여 泥峴 시장, 南山, 南關王廟를 관광하였던 일을 서술하였다.

춘헌과의 관계를 기록함에 있어 작자는 그녀와의 사랑과 갈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춘헌과의 만남을 통해 이어갔던 사랑과 갈등의 양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아침을 먹고 伊人네 집에 갔는데, 기쁘지 않은 기색을 하고 창 밑에서 수를 놓으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소회를 탐색하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이 興根이 첫 돌인데, 그 아비가 전혀 돌보지 않아서 그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위로해 주고 돌아와서 當五錢 20꿰미, 當百錢 1매, 옛날 동전 250닢, 彩兒扇 1자루, 黃毫筆 2자루, 玄香墨 1자루, 紫荊弓 1장(張)을 마련하여 보내어 흥근이 첫돌 잔치에 드는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36)

---

33) 池圭植, 『荷齋日記』 1891년 2월 18일.
34) 池圭植, 『荷齋日記』 1891년 윤6월 17일.
35) 池圭植, 『荷齋日記』 1891년 4월 29일.
36) 池圭植, 『荷齋日記』 1891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국역 하재일기』를 참고하였다.

興根이의 첫돌이다. 약간의 안주와 음식을 마련하여 益俊과 함께 먹었다. 느지막하게 三觀亭 옛 터에 올라가서 강산을 굽어보고 석양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두 낭자가 새가 나는 듯이 사뿐히 올라오는 것이 멀리 보였다. 가까이에서 보니 바로 伊人과 그 동서였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가서 경치를 구경하였는데, 조금 이따가 두 여인은 함께 雙胎峰으로 올라갔다.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 이리저리 돌아서 더위잡고 올라가 보니, 한 사람은 소나무 아래에 엎드려 있고, 한 사람은 바위 가에 몸을 기대어 몹시 슬퍼하며 목놓아 울고 있어서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곧 해가 져서 억지로 끌고 돌아왔다.37)

春軒에게는 아들을 낳게 한 남성이 있었으며, 興根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춘헌이 그 남성과 정식 혼인을 올린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춘헌 또한 그 남성의 연인 혹은 부인일 텐데,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짐작된다. 1890년에는 춘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간난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으며, 동서와 같이 어울려 지내기도 하였다. 1893년 7월 6일에 딸을 낳았지만 한 달도 되지 못하여 요절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위의 인용문으로 미루어 보아 춘헌과 그 남성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돌이 지난 갓난아기를 키우며 장춘헌을 운영하고 있는 춘헌을 위해 지규식은 첫돌 비용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슬픔에 잠겨 있는 그녀를 위로해 주기도 하였다. 지규식의 춘헌에 대한 감정에는 연민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여성인데, 그 여성이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 하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지규식이 춘헌에게 주는 선물 가운데 과일이나 먹을거리 등은 춘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를 생각한 것으로 짐작된다. 1898년 1월 4일 춘헌이 병을 앓다가 죽게 되는데, 그로부터 10일 뒤에 쓰인 일기에는 “깊은 밤에 춘헌 집에 가서 과일을 사서 아이에게 주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보인다. 죽은 춘헌의 집을 찾아가서 춘헌의 아이에게 과일을 주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여성이지만, 그래도 그 여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지규식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다.

37) 池圭植, 『荷齋日記』 1891년 2월 23일.

춘헌과의 만남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사소한 일로 갈등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절교를 했다가 다시 화해하기를 여러 차례 거듭하기도 하였다. 남녀 간의 만남과 애정 관계에서 흔히 엿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 달빛을 받으며 長春軒에 이르렀는데 주인이 외출하여 머물러 기다리니, 四更이 되어 비로소 들어왔다. 나는 느낀 바가 있어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다.[38]

춘헌을 찾아갔지만, 춘헌은 외출을 했다가 새벽녘에 돌아왔다. 그때까지 줄곧 기다렸던 작자는 느낀 바 있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간명하고 단호하게 서술하였다.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다'는 표현 또한 흥미롭다. 춘헌과의 관계에 대해 작자가 무언가 깊이 다짐한 것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사경이 되어서 [춘헌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미루어 보아, 작가의 질투심을 엿보게 한다.

> 밥을 먹고 공방에 들어가 적조한 회포를 풀고, 서울에서의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장춘헌에 가서 반가워하며 악수하고 이야기했는데, 蘭人이 기쁘지 않은 기색을 하고 있었다. 그 연유를 캐어물으니 난인이 말하기를 "수개월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였다고 추악한 소문이 원중에 떠들썩하니,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라고 무수히 발명하였으나, 그 말을 들으니 몹시 통탄스럽다. 밤이 깊어서 돌아와 잤다.[39]

궁궐과 관청에 각종 그릇을 납품하는 貢人이었던 지규식은 1년 중 몇 개월 이상 서울 등의 지역으로 출타를 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춘헌은 서울 출장에서 돌아온 작자에게 추악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 이에 대해 작자가 무수히 변명을 하였던 곤혹스러운 상황을 다루었다.

> 장동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등잔불을 켜고 저녁을 먹고 야심한 뒤에

38) 池圭植, 『荷齋日記』 1891년 4월 10일.
39) 池圭植, 『荷齋日記』 1891년 6월 24일.

> 깊은 잠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즐기기를 청하여 부득이 허락하였다.[40]

궁궐에 그릇을 납품하기 위해 서울에 출장했을 때 외도를 하였던 경험을 솔직하게 적어놓았다. 지규식은 서울 출장 때에 장동의 한 여관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어느 여인의 유혹을 받고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고백하였다. 공방에 떠도는 소문과 춘헌의 의심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재일기』에는 춘헌과의 교제 중에서 경험하였던 다양한 사건과 감정과 심적 갈등을 가감없이 기록으로 옮겨 놓았으며, 그 같은 자잘한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춘헌을 찾아갔는데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 분함을 참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새벽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을 품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질투와 배신감 등의 감정이 들어 있을 것이다.

춘헌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지규식은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어긋남과 갈등으로 인한 복잡한 감정들—서운함, 후회, 배신, 원망, 분노, 안타까움, 연민 등—을 숨김없이 일기 속에 토로하였다. 이러한 감정은 인간관계, 특히 남녀 간의 관계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것들이다. 남녀 관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들, 심적 고뇌와 갈등 등을 작자는 숨김없이 진솔한 표현 속에 드러내고 있다. 이 점이 또한 『하재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의 하나이다.

절교와 화해를 반복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춘헌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 ・춘헌에 갔는데 의롭지 못하고 무정한 일이 있어서 대단히 가슴 아프고 원망스럽다. 내가 스스로 자책하고 영원히 절교하기로 하였다.[41]
> ・생명주 4자 값이 10냥이요, 왜밀 1장에 8전이요, 참분 1갑 값이 1냥 7전인데 춘헌에게 주었다.[42]

---

40) 池圭植, 『荷齋日記』 1891년 8월 23일.
41)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4월 9일.

・밤에 춘헌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닭이 운 뒤에 돌아왔다.43)

장춘헌에서 작자는 의롭지 못하고 무정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원망스러운 마음에 춘헌과의 절교를 선택하였다. 교제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그 다음 날 생명주, 왜밀, 참분 등을 선물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장춘헌에서 새벽까지 정담을 나누었다. 작자가 절교를 택하게 되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의롭지 못한 일',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등에서처럼 춘헌과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짐작되는 것이 절교의 원인일 때도 있다. 특히 공방의 동료들과 춘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대목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때로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절교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춘헌과 절교를 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무너져 버린다. 교제를 끊기로 결심한 지 얼마 못되어 장춘헌을 찾아가 다시 화해를 하기를 반복한다. 『하재일기』에는 두 남녀 사이의 절교와 화해의 반복이 모두 6차례에 걸쳐 일어난다.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작자는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작자는 춘헌과의 관계를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춘헌은 지규식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지규식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다.

1898년 1월에 춘헌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지규식은 춘헌을 그리워하며 한시 두 수를 지었는데, 다음은 그중의 하나이다.

창 가득 달그림자에 꽃가지 흔들리는데
그 옛날 미인과 함께 정담을 나눌 때라네
꽃과 달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아득한 이 슬픔을 누가 알리오

滿窓月影動花枝, 曾與玉人私語時.
花月依然人不見, 悠悠此恨有誰知.44)

---

42)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4월 10일.
43) 池圭植, 『荷齋日記』 1892년 4월 11일.

이상에서 볼 때 지규식과 춘헌의 관계는 어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일까? 상호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지규식은 춘헌에 대해 한결같이 정성을 쏟고 애정을 표현하였다. 춘헌이 병이 들었을 때에는 직접 약을 조제하기도 하고 장춘헌에 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하기도 하였다. 지규식에게 있어 춘헌은 끊임없이 바치는 사랑이고,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춘헌은 지규식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겠지만, 지규식을 사랑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춘헌에게 지규식은 배타적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雲樓와의 사랑과 갈등

춘헌이 세상을 뜬 지 1년 정도가 지난 뒤에 雲樓라는 여성과 만남을 가졌다. 운루는 벽운루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이었다. 碧雲樓는 長春軒과 마찬가지로 分院 근처의 술집 이름이다. 일기에서 雲樓, 碧雲樓, 碧雲堂, 雲堂, 碧雲 등의 이름으로 호명하였다. 그중에서 운루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1900년 1월 3일 일기를 보면, "운루가 그 남편에게 괄시를 당하였으니, 괴이하고 원한스럽다."[45]는 내용이 나온다. 운루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며, 그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운루는 1899년 3월 20일에 처음 일기에 등장한 이후 1908년 4월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기록이 계속 이어진다.

- 벽운당에 이르러 회포를 나누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46]
- 밤에 운루를 방문하여 회포를 나누었다.[47]
- 운루와 밤에 이야기를 나누었다.[48]

---

44) 池圭植, 『荷齋日記』 1898년 윤3월 7일.
45) 池圭植, 『荷齋日記』 1900년 1월 3일. "雲樓見恕於其夫, 可怪可恨."
46)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4월 8일.
47)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5월 4일.
48)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5월 18일.

- 운루와 밤에 이야기를 나누었다.[49]
- 밤에 운루에게 가서 회포를 나누었다.[50]
- 밥을 먹은 뒤 운루를 방문하여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51]
- 운루 주인이 체해서 설사를 하는 바람에 몸져누웠는데, 계속 약을 복용했더니 늦게 차도가 있었다. 밤에 함께 회포를 나누었다.[52]
- 운루와 밤에 이야기를 나누었다.[53]

운루와 처음 만난 무렵에 쓴 일기를 예시로 들었다. 하루의 일기 중에서 운루와의 만남을 간략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春軒의 경우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작자는 운루라는 여성과 만난 경험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특별하게 기록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자세하게 서술하였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밤에 벽운루를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는 방식으로 기록한 경우도 많이 보인다. 운루와의 만남을 그의 일기 속에 하나도 빠뜨림 없이 기록하고자 하는 서술 태도가 주목된다.

『하재일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성과의 만남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점 이외에 여성과 만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과 심리를 매우 진솔하게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상대 여성과의 불화와 갈등 속에서 더욱 더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운루와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작자는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나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① 운루가 시기하고 의심하는 일이 있으므로 내가 스스로 사양하고 물러났더니, 밤이 깊은데 방문하여 운운하는 바가 있어 나도 "예, 예."라고 대답했다.[54]
② 밤에 운루를 방문하여 이상한 일을 보았다.[55]
③ 돌아오는 길에 운루에 들렀는데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몹시 분함을 견딜 수

49)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5월 21일.
50)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5월 27일.
51)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5월 29일.
52)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6월 1일.
53)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6월 2일.
54)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6월 8일.
55) 池圭植, 『荷齋日記』 1901년 11월 14일.

없었다. 일이 맹랑스러우므로 좋게 타협하고 마음을 풀고 돌아왔다.[56]
④ 저녁에 운루에 들러 이야기하려 하니 얼굴을 돌렸다. 매우 한탄스럽다.[57]
⑤ 저녁에 운루에 들러 화해하였다.[58]
⑥ 운루가 소홀하게 대우한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화를 내고 돌아왔다.[59]
⑦ 운루의 마음 씀을 헤아릴 수 없으니 매우 괴이하다.[60]
⑧ 운루가 김장 일로 불미스런 말을 하였다. 나는 화가 나서 온종일 외출하지 않았다.[61]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작자는 운루와 만나면서 겪게 되는 감정과 심리의 다양한 양상들을 숨김없이 드러내었다. 때로는 서운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화를 내고 분함을 견디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게 둘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다가도 다시금 화해를 하고 마음을 풀고 만남을 지속해 나갔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얼굴을 돌렸다'는 표현에서 운루와의 불편한 관계를 암시하고, 화해했다고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다툼 등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놓지 않았다. 일기에는 '이상한 일', '불미스런 말' 등으로만 표현하였다. 짐작컨대 운루와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빚어지는 오해, 또는 상대방에 대한 질투심 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⑧을 보면 김장을 하는 일로 불미스러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작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외출도 하지 않았다. 일기에 표현된 운루와의 만남과 사랑, 갈등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들만을 따로 떼어놓고 읽어보면, 운루와 엮어나가는 연애사를 떠올릴 수 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때로는 다툼과 갈등도 있었지만 다시 화해를 거듭하면서 만남을 이어갔다. 특히 운루와의 관계에서 작자는 병을 앓고 있는 그녀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면서 보살폈다.

56) 池圭植, 『荷齋日記』 1901년 12월 20일.
57) 池圭植, 『荷齋日記』 1902년 1월 6일.
58) 池圭植, 『荷齋日記』 1902년 1월 8일.
59) 池圭植, 『荷齋日記』 1905년 9월 8일.
60) 池圭植, 『荷齋日記』 1906년 2월 14일.
61) 池圭植, 『荷齋日記』 1906년 9월 23일.

① 밤에 운루에게 이르렀는데 병세가 가볍지 않아 약을 달여 복용하게 했다.[62]
② 운루의 복통이 심각하였다. 저녁이 된 뒤 四六地黃湯 1첩을 복용하였으나 통증이 점점 심해 다시 홍 약국에게 의논하여 加味治中湯 1첩을 또 복용하였다.[63]
③ 운루의 병증이 가볍지 않아 매우 걱정스럽다.[64]
④ 운루의 병세가 밤이 되니 또 더 심해져 밤이 깊도록 간호하고 돌아왔다.[65]
⑤ 운루의 병세가 끝내 차도가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66]
⑥ 운루가 약을 복용한 뒤 소변보기가 매우 어렵다. 下門이 찢어지는 듯 심히 아프기만 하고 효험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니, 다시 6알의 환약을 보내고 2알씩 3차례에 삼키라고 하였다.[67]
⑦ 벽운당을 간병하려고 프랑스 의사를 초청하여 문의하고 침을 맞고 약을 받았다. 약값은 200냥으로 확실히 정하고 100냥을 먼저 주었다.[68]
⑧ 저녁을 먹은 뒤 운루에 이르니 갑자기 변심하여 불선하고 패악한 말을 한없이 해댔다. 그 연유를 물으니 "내가 병중에 맛있는 음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고, 기어코 단절하려고 하였다. 그가 한 말을 들어 보니 이간하는 말이 있어 빚어진 것임을 알았다. 굳이 변명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家僮을 보내어 침구를 가져왔다.[69]

운루의 병을 간호하고 돌보는 내용을 다룬 일기를 뽑아 보았다. 운루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작자는 약을 구하여 복용하게 하고 때로는 자신이 직접 환약을 만들어 먹이기도 하였다. 그녀의 병이 낫지 않음에 따라 걱정을 하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는 마음을 숨김없이 일기 속에 기록하였다. 때로는 밤을 새워 가며 운루를 간호하였으며, 프랑스 의사를 초빙하여 당시로는 거금 200냥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작자는 운루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여러 방도를 찾아보거나 정성을 들여 간호를 하였다. '약을 복용한 뒤 소변보기가 매우 어렵다. 下門이 찢어지는 듯 심히 아프기만 하고 효험이 없'다고 구체적

62)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12월 11일.
63)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12월 12일.
64)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12월 15일.
65)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12월 26일.
66) 池圭植, 『荷齋日記』 1899년 12월 27일.
67) 池圭植, 『荷齋日記』 1906년 3월 4일.
68) 池圭植, 『荷齋日記』 1908년 3월 2일.
69) 池圭植, 『荷齋日記』 1908년 3월 17일.

정황을 묘사한 대목은 전시대 일기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문 ⑧에서 보듯이, 병을 앓고 있는 운루와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병중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작자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는데, 누군가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것으로 빚어진 작은 소동이었다. 이에 대해 작자는 굳이 변명을 하지 않고 '家僮을 보내어 침구를 가져왔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작자가 벽운루에서 침식을 하면서 운루를 간호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1908년에 들어와 운루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① 저녁을 먹은 뒤 운루에 가니 패악스런 말이 적지 않아서 바로 돌아왔다.[70]
② 운루의 병세가 더욱 심해졌다. 나에게 간호를 청하여 부득이 또 가서 밤을 새웠다.[71]
③ 운루를 간병하느라 밤을 새웠다.[72]
④ 운루 병세가 더욱 심하여 온 낮과 밤을 심한 고통으로 보냈다.[73]
⑤ 운루 병세가 조금 차도가 있다.[74]
⑥ 운루 병세가 더욱 심하더니 밤 子時 초에 죽었다. 매우 가련하고 애처롭다. 함경빈 부자를 불러 收屍하고 밤을 보냈다.[75]
⑦ 운루를 정오에 염습하고 申時에 입관하였다.[76]
⑧ 운루를 발인하여 山南으로 나가 下堂峴에 매장하였다.[77]

벽운루에 있던 침구를 집으로 가져온 작자는 그 다음 날 운루의 병이 걱정되어서 벽운루를 찾아갔다. 하지만 운루로부터 패악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운루는 병세가 더욱 심해지자 작자에게 병간호를 부탁하게 된다. 아마도 이 당시 운루 주변에 그녀를 간호할 사람이

70) 池圭植, 『荷齋日記』 1908년 3월 18일.
71) 池圭植, 『荷齋日記』 1908년 3월 21일.
72) 池圭植, 『荷齋日記』 1908년 3월 24일.
73) 池圭植, 『荷齋日記』 1908년 3월 27일.
74) 池圭植, 『荷齋日記』 1908년 3월 28일.
75) 池圭植, 『荷齋日記』 1908년 4월 4일.
76) 池圭植, 『荷齋日記』 1908년 4월 5일.
77) 池圭植, 『荷齋日記』 1908년 4월 6일.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그녀의 남편이나 가족 등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작자는 운루를 찾아가 밤을 새워가면서 간호를 하였지만, 악화된 그녀의 병세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끝내 1908년 4월 4일 세상을 떠났다. 운루가 세상을 떠난 날의 일기에서 작자는 '매우 가련하고 애처롭다'고 하여 그녀의 죽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 이후 입관과 장례에 대해서도 기록해 두었다.

3) 春軒에게 준 선물

지규식은 춘헌에게 많은 정성을 쏟고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춘헌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보냈다. 그 목록을 잠시 들어본다.

> 石油燈, 우산, 진신, 담배, 과일, 초, 細篩, 生綿紬, 倭蜜, 眞粉, 正肉, 대추, 앵두, 약병아리, 苧亢羅, 참외, 牛心, 명주, 唐木, 담뱃대, 참빗, 麻布, 生苧, 乾鞋, 粉, 부채, 미역, 갈비, 황모시, 七仙丹, 돼지고기, 은장도, 은, 西洋紗, 紫倭緞[일본 비단], 붓, 먹, 도미, 『情史』, 『靑丘永言』, 현금

선물 목록에는 현금과 먹을거리도 있지만, 여성의 몸단장이나 치장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서울에 출장을 갔을 때에 바쁜 시간을 내어 춘헌을 위한 여러 선물들을 구입하였다. 그러한 선물 중에서 분, 명주와 비단 등의 옷감, 참빗, 신발 등은 일종의 사랑의 징표였다.[78] 선물을 주는 것 이외에 지규식은 춘헌에게 생활비, 땔나무 값, 옷감 값, 약값, 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하였다.

위의 선물 목록 중에서 또 하나 특별히 지적할 것은 『情史』, 『靑丘永言』이라는 책이다.

---

78) 서양에서는 남녀 간의 애정의 징표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등장한다. 여자들의 경우 빗, 리본, 반지, 팔지, 손수건, 작은 안경, 진주 목걸이, 허리띠 등은 모두 사랑의 징표였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반지나 리본을 주고 대신 리본이나 손수건을 받았다.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책임편집, 앞의 책.

> 점심 때 우천에 나가『靑丘永言』을 초록하여 작은 책자로 만들었다. 저녁을 먹은 뒤 소매 속에 넣고 춘헌에 가서 보고서 읊게 하였다. 3전은 담뱃값이다.[79]

> 밤에 춘헌에 가서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情史』중에서 볼 만한 것을 한글로 베꼈다.[80]

> 초록한『情史』를 표지를 잘 꾸며서 춘헌에게 주었다.[81]

馮夢龍의 애정소설『情史』를 손수 초록하여 한글로 번역하고 책의 표지까지 잘 꾸며서 춘헌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기록은 조선 후기에『情史』가 수용된 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지규식은『情史』중에서 읽을만한 것을 직접 선별하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였다. 소설에 대한 지규식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춘헌에 대한 애정의 징표로 직접 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또한 지규식은 金天澤이 편찬한 시조가집『靑丘永言』을 초록하여 책자로 만든 뒤에 춘헌으로 하여금 읊게 하기도 하였다. 1896년 8월 23일 기록에는 "조 고양 댁에서 언문 소설『權龍星傳』을 빌려서 춘헌에게 보냈다."는 내용도 보인다.「권용성전」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애정소설이다. 지규식 자신이 애정과 관련된 소설들—情史, 西廂記, 桃花扇—을 많이 읽었으며, 한글을 해독할 줄 아는 춘헌을 위해 한문으로 된 작품을 한글로 직접 번역을 해서 소책자 형태로 선물을 하였던 것이다. 춘헌에게 준 소설 또한 애정을 다룬 소설이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애정소설을 한글로 번역하고 책자로 만들어 춘헌에게 선물로 준 것은 춘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애정 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소설이 유통 소비되는 새로운 현상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79) 池圭植,『荷齋日記』1892년 2월 28일.
80) 池圭植,『荷齋日記』1893년 10월 15일.
81) 池圭植,『荷齋日記』1893년 10월 22일.

3. 『하재일기』에 나타난 기록 의식의 일면

근대에 이르러 散文은 현실의 무한한 경험의 데이터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고자 하는 백과사전적 총체화를 지향한다. 예컨대 17세기 후반 영국의 사무서기였던 새뮤얼 핍스(1633-1703)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를 통해 삶의 총체성에 도전하고자 하는 산문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82] 새뮤얼 핍스가 쓴 『일기』에는 부부 생활과 사생활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매우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의 일기는 영국 중류층의 일상 생활에 대한 귀중한 사료를 제공해준다. 특히 새뮤얼 핍스는 부부간의 내밀성과 부정, 우연한 사랑, 그리고 몸에 관한 관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예리하게 주시하였다.[83]

지규식이 남긴 『하재일기』 또한 자신의 경험했던 일들을 빠짐없이,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春軒, 雲樓라는 두 여성과 나누었던 사랑에 관한 기록이었다. 지규식은 두 여성과의 내밀한 사생활의 모습들을 숨기지 않고 서술하였다. 만남을 가졌던 날에는 어김없이 그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일기 속에 적어나갔다. 두 여성과 만나 사랑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다시 화해와 타협을 반복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지규식은 만남 - 갈등 -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두 여성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작자 자신이 겪게 되는 감정과 심리의 다채로운 양태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하재일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감정은 질투, 원망, 배신감, 분노, 서운함, 후회, 안타까움, 연민 등 매우 다양하다. 사랑과 다툼과 화해의 반복 속에서 작중화자가 겪었던 감정의 다양한 양태들을 작자는

82) Wlad Godzich and Jeffrey Kittay, *The Emergence of Pros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윤혜준, 「새뮤얼 핍스의 일기에서의 주체와 문체」, 『영어영문학』 제44권 2호, 영어영문학회, 1998 참조.

83)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책임 편집, 앞의 책, 454면.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은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자는 남녀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감정들, 심적 갈등 양상을 진솔한 표현 속에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두 여성과의 만남 자체를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다는 점, 그리고 두 여성과 교제하면서 겪었던 자신의 감정과 심리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는 점이 우리가 『하재일기』에서 주목해야 할 그의 기록 의식이라고 생각된다. 지규식은 춘헌, 운루라는 두 여성과 각각 10여 년 동안 만남을 지속하였다. 『하재일기』에는 두 여성과 만났던 시간과 장소,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상의 사건과 감정들이 빠짐없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일상 중에서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재일기』는 일기라는 형식 속에 이같은 개인의 내밀한 생활을 빠뜨림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전환기의 시대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개인 주체의 감정과 욕망, 권리가 무엇보다도 중시되었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재일기』에 나타난 이같은 기록 의식이 지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하재일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다툼의 실상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대신 '불미스러운 일', '이상한 일', '패악스러운 말', '의롭지 못한 무정한 일'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사생활을 고백을 하면서 일부를 감추는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드러내기와 감추기의 긴장 속에 『하재일기』에 나타난 사생활 기록 방식의 특징이 있다.

지규식은 두 여성과 만난 사실을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일기에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그런데 상대 여성과 갈등을 벌이고 다툼을 하는 과정은 대체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 '이상한 일', '의롭지 못한 무정한 일'과 같이 서술하였다. 어떤 일이 불미스럽고 이상하고 의롭지 못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사생활의 비밀을 드러내되 일부분은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것으로 감추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일상과 사랑을 꼼꼼하게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貢人 출신이라는 지규식의 신분 및 직업에 따른 의식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릇을 제작하여 궁궐에 납품하는 공인이었던 지규식은 공방이 민영화되고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였다.[84] 한양과 분원을 오가면서 공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그는 도시 상업 문화 및 자본주의적 사회로의 변화하는 세태를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양반 사대부들과의 다른 층위에서 외부 세계와 개인의 일상을 일기라는 장르 속에 기록하고자 하였다. 양근 분원 소속의 공인으로서의 지규식의 삶은 사랑의 방식을 바꾸고 일기를 기록하는 방식도 바꾸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고, 일기 속에서도 그러한 개인적인 삶과 사랑, 내밀한 욕망을 기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재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춘헌과 운루라는 두 여성과의 사사로운 만남과 사랑은, 토크빌의 말을 빌리면, '자기만의 작은 사회'였다.[85] 주변 인물들의 평가나 시선 등을 개의치 않고 두 여성과의 교제를 지속해 나가고, 둘 사이에 있었던 사생활의 내밀한 모습들을 지규식은 빠짐없이 매우 솔직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지규식 자신은 두 여성과의 관계를 일기로 기록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전환기 개인 및 개인주의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에 『하재일기』에 나타난 사생활의 기록은 이러한 점에서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4. 마무리

이 논문은 근대 전환기를 살아갔던 荷齋 池圭植(1851-?)이 남긴 『하재일기』를 중심으로 그의 사생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다. 공적인 업무 활동 이외에 개인의 일상과 생활을 풍부하게 서술한 『하재일기』 중에서 지규식과 연인 사이를 오랜 기간 유지했던 춘헌과 운루라는 두 여성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하재일기』에 나타난 사생활의 주된 영역을 연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지규식은 두 여성과 만남을 가졌던 날에는 어김없이 그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일기 속에

84) 이에 대해서는 박은숙의 논문을 참고.
85) 알랭 로랑, 『개인주의의 역사』, 김용민 역, 한길사, 2001 참조.

적어나갔다. 두 여성과 만나 사랑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다시 화해를 반복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작자는 만남 - 갈등 - 화해를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두 여성과 교제하면서 겪었던 사소한 일상과 다양한 감정 양태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하재일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두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지규식은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어긋남과 갈등으로 인한 복잡한 감정들—서운함, 후회, 배신, 원망, 분노, 안타까움, 연민 등—을 숨김없이 일기 속에 토로하였다. 이러한 감정은 인간관계, 특히 연인 간의 관계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것들이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들, 심적 고뇌와 갈등 등을 작자는 숨김없이 표현하였던 것이다.

지규식이 『하재일기』에서 상세하게 기록한 두 연인과의 교제는 가장 사적이며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에서 가장 은밀한 영역이다. 인간의 내밀한 욕망, 사랑과 성에 관련된 이들 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규식의 기록 의식을 살펴본 이 논문이 근대전환기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진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池圭植, 『荷齋日記』, 규장각 소장본.
_____, 『國譯 荷齋日記』 1-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5-2009.

김동철, 『조선후기 공인 연구』, 한국연구원, 1993.
김소영, 「전통과 근대를 살아간 인물, 하재 지규식의 일상을 통해 본 그의 사상과 종교」, 『한국인물사연구』 제19호, 한국인물사연구소, 2013, 65-108면.
김종철, 「하재일기를 통해 본 19세기 말기 판소리 창자와 향유층의 동향」, 『판소리연구』 제32집, 판소리학회, 2011, 61-103면.
리하르트 튈멘, 『개인의 발견』, 최윤영 역, 현실문화연구, 2005.
박은숙, 「개항 후 分院 운영권의 민간 이양과 운영실태—荷齋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142호, 한국사연구회, 2008, 251-294면.
_____, 「분원 공인 지규식의 공사적 인간관계 분석」, 『한국인물사연구』 제11호, 한국인물사연구소, 2009, 221-259면.
_____, 「대한제국기 燔磁會社의 설립과 운영」, 『한국사연구』 제149호, 한국사연구회, 2010, 279-319면.
_____, 「번자회사의 사원 개별운영체제와 彩器생산」 『한국사연구』 제159호, 한국사연구회, 2012a, 115-149면.
_____, 「사원 지규식의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을 둘러싼 시국 인식」, 『한국인물사연구』 제17호, 한국인물사연구소, 2012b, 323-357면.
_____, 「경기도 분원 마을 지규식의 자녀 혼사와 사돈 관계(1891-1910)」, 『한국인물사연구』 제19호, 한국인물사연구소, 2013, 29-63면.
_____, 「분원 사기장의 자유해방과 계약 노동자의 길(1895-1910)」 『역사와현실』 제93호, 한국역사연구회, 2014, 333-371면.
_____, 「경기도 분원마을 주민이 경험한 갑오년(1894) '난리' : 갑오개혁과 동학농민전쟁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4집, 2015, 7-37면.
_____, 「개항 후 분원 공인과 공가에 대한 연구(1883-1895)」, 『한국사연구』 제174호, 한국사연구회, 2016a, 203-237면.
_____, 『시장으로 나간 조선백자』, 역사비평사, 2016b.
_____, 「근대 사금융 거래와 채권자의 성분」, 『한국사연구』 제189호, 한국사연구회, 2020, 155-188면.
방병선, 「하재일기를 통해 본 조선말기 분원」, 『강좌미술사』 제34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271-297면.
송재용, 「하재일기에 나타난 관혼상제례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70집, 동양고전학회, 2017, 435-466면.
_____, 『하재일기에 나타난 민속 연구』, 박문사, 2020.
신경미, 「하재일기를 통해본 19세기말 20세기초 지역 지식인의 변화」, 『인문과학연구』 제26집,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8, 161-181면.

안승택,「분원리의 역사민속」,『광주 분원리 도요지 복원·보존을 위한 정기 종합 마스터플랜 학술연구 결과 자료집』, 경기도 경기도문화재단, 2005.
알랭 로랑,『개인주의의 역사』, 김용민 역, 한길사, 2001.
유호선,「하재일기를 통해 본 공인 지규식의 삶과 문학」,『한국인물사연구』제19호, 한국인물사연구소, 2013, 3-28면.
윤양노,「하재일기로 본 개항기 의생활 문화」,『한복문화』제17호, 한복문화학회, 2014, 15-28면.
윤혜준,「새뮤얼 핍스의 일기에서의 주체와 문체」,『영어영문학』제44권 2호, 영어영문학회, 1998, 321-337면.
이정현,「하재일기를 통해 본 구한말 의약생활의 변화」,『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제27권 4호, 2014, 39-53면.
이헌창·조영준,「조선 후기 貢價의 체계와 추이」,『한국사연구』제142호, 한국사연구회, 2008, 203-249면.
차은정,「한말 공인의 선물 교환과 사회관계」,『한국문화』제52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123-157면.
최경화,「조선후기 분원리 시기 관요백자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4.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책임편집,『사생활의 역사』(3), 새물결, 2002.

Godzich, Wlad and Kittay, Jeffrey, *The Emergence of Pros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Abstract】

The daily life and love of individual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rough the *Hajae Diary*

Chung, Woo-Bong*

This thesis examined the records of his private life, focusing on the *Hajae Diary* left by Hajae Ji Gyu-sik (1851-?), who lived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In addition to public business activities, we focused on the intimate aspects of his private life through the richly described personal life. The *Hajae Diary* is a diary written by Ji Gyu-sik very faithfully for 20 years. Public activities as a human being, and changes and trends in social reality at the time are also abundantly recorded, but it has also recorded every day and love as an individual.

In the meantime, various research results have been submitted on the *Hajae Diary*. However, it seems that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regarding his private life. An analysis of Ji Kyu-sik's family history and human relations has been submitted.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i Kyu-sik and a woman named Chun-heon who maintained a relationship for a long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areas of private life in the *Hajae Diar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lover. The relationship with a lover that Ji Gyu-sik recorded in detail in *Hajae Diary* can be said to be the most private and personal domain. This is the most intimate area of an individual's privacy. The progress of a new perception of the individual was examined by examining the recording consciousness of Ji Kyu-sik in these materials related to human intimate desire, love and sex.

Keywords: *Hajae Diary*, Ji Kyu-sik, Private Life, Individual, Love, every day, Modern Transition Period.

접수일: 2020.09.29.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09.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orea Univ.